

A Study on Freshmen's Recognition of Their Choice of Colleges¹⁾

Jae-Kyoung Shin²⁾ · Duk-Joon Chang³⁾

Abstract

Today rapidly changing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of the universities such as the reduction of freshmen quota forces most universities to be facing a dangerous existence. It is an urgent thing for the universities to secure finance and good students. Because it was thought that to know freshmen's recognition of their choice of colleges would serve to establish the screening system of each university, we studied it through the survey of the freshmen in some universities.

We randomly chose some national universities, private universities and educational universities to investigate who are responsible for their choice of colleges. It is shown that the influence of their high school teachers upon their students' choosing universities is no more than 10%. As a result, the establishment of proper policy of admission to each university on its own that makes 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the university will be effective in choosing good students.

Keywords : A survey of freshmen's recognition, Correct discrimination, Discriminant analysis, Discriminant function, Homogeneity test

1. 서론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대학구조개혁 등으로 인해 각 대학의 생존에 대한 위기감은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10% ~ 15%의 신입생 정원감축으로 인한 재정확충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 확보에도 비상이 걸려 있는 실정이다. 지원하는 대학의 선택권에 대한 신입생들의 인식을 활용하는 것은 각 대학이 입시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정보일 것으로 판단되어 각 대

1) 이 논문은 2005년도 창원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경남 창원시 사림동 9번지, 641-773, 창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E-mail : jkshin@sarim.changwon.ac.kr

3) 경남 창원시 사림동 9번지, 641-773, 창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입생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전국 대부분의 4년제 및 2년제 대학에서 거의 매년 신입생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들 보고서 중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파악하고 그들 결과 중에서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몇 개의 문항을 선택하여 다양한 분야별로 대학 신입생들의 학교 선택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대학에서 매년 조사·분석한 결과를 단순한 보고서로만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듯 하다. 현재 국내 대학은 대학 내·외의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시점에 각 대학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신입생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각 대학 당국이 수립 가능한 효과적인 입시정책과 교육정책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장에서는 2000학년도 전후부터 전국에서 신입생실태조사를 실시한 전국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및 교육대학 중 임의로 선택하여 대학지원에 영향을 준 대상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2장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일선 고등학교교사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각 대학에서 어떤 방향으로 입시홍보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수한 신입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2. 신입생실태조사 결과의 현황 및 분석

매년 전국의 4년제 및 2년제 대학에서는 당해연도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실태조사 보고서나 각 대학의 학생생활상담 센터와 관련된 연구소 및 기관에서 발행한 저널에 게재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조사연구를 하였다. 우선 전국의 대학 중 신입생실태조사 보고서와 관련 발간물 들 중 연구의 중요 주제인 “본 대학에 진학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은?”이라는 질문이 포함된 대학 중에서 지역과 대학 형태를 고려하여 총 13개 대학을 표본으로 선정하였고, 각 대학마다 달리 표현된 응답문항도 응답수를 중심으로 부모, 고교교사, 본인 및 응답수가 많지 않은 나머지 문항들을 합한 기타 항목으로 하여 총 4개 응답항목으로 조정하였다. 이들 자료를 기초로 각 대학간의 응답비율 순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한 대학에서 년도 별로 각 항목의 응답비율의 순서에 차이가 있는지를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 교육대학교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국립, 사립 및 교육대학들을 관별분석하여 대학형태를 관별하는데 기여하는 응답항목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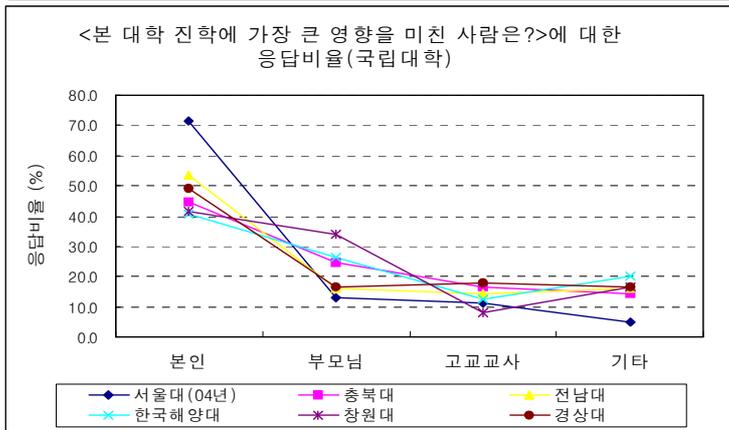
2.1 국립대학교

먼저, 신입생실태조사에서 본 연구의 주 핵심 내용인 “본 대학에 진학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은?”이라는 질문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질문이 포함된 6개 국립대학교(지역을 고려하여 선정)를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서울대학교는 2000년부터 2004년간 5년 동안의 조사보고서를 자료로 활용하여 년도 별로 각 항목의 응답비율의 순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들 6개 국립대학에 대한 현황을 나타낸 것이 <표 1>이다. <표 1>의 각 항목별 응답비율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6개 국립대학 모두에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본인’이었고, 또한, 경상

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본인 다음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부모님’(단 경상대학교는 고교교사가 17.9%, 부모님이 16.5%)이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본인’이라는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최고인 71.3%로 다른 대학(약 50% 전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은 한국해양대학교의 40.8%이다. 반면 ‘부모님’이라는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창원대학교로써 33.9%이고 가장 낮은 대학은 12.8%의 서울대학교이다. 이상에서 국립대학 입시에서 고등학교 교사들이 입시생들의 대학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10%에서 20% 사이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본 대학에 진학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에 대한 응답비율(국립대학의 경우)

질문 문항	본인	부모님	고교교사	기타
서울대	71.5	12.8	11.0	4.7
충북대	44.9	24.4	16.4	14.3
전남대	53.8	16.0	14.2	16.0
한국해양대	40.8	26.5	12.5	20.2
창원대	41.6	33.9	7.9	16.6
경상대	49.2	16.5	17.9	16.4



<그림 1> 본 대학 진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에 대한 분포(국립대학)

다음으로, 6개 국립대학간 응답항목에 대한 구성비율이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동일성검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유의수준 0.01에서 “ H_0 : 6개 국립대학교의 문항별 응답비율은 동일하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이는 같은

<표 2> 카이제곱 검정의 결과(국립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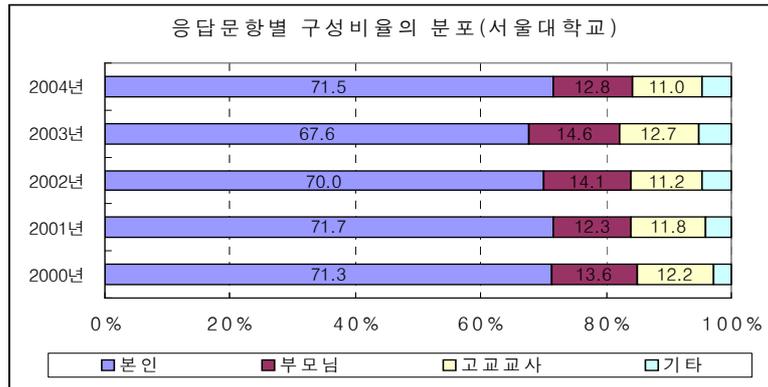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957.585	15	.000

국립대학교라고 하더라도 지역 등에 따른 특징으로 인해 그 차이가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은 서울대학교의 지난 5년(2000년부터 2004년)간 신입생실태조사에서 「본 대학에 진학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문항별 응답비율 현황을 나타낸다.

<표 3> “본 대학에 진학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에 대한 응답비율(서울대학교, 2000년부터 2004년간)

질문 문항 대학교	본인	부모님	고교교사	기타
2000학년도	71.3	13.6	12.2	2.9
2001학년도	71.7	12.3	11.8	4.2
2002학년도	70.0	14.1	11.2	4.7
2003학년도	67.6	14.6	12.7	5.1
2004학년도	71.5	12.8	11.0	4.7



<그림 2> “본 대학에 진학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에 대한 연도별 응답비율(서울대학교, 5개년 간)

<그림 2>는 서울대학의 지난 5개년 간 연도별 각 응답문항에 대한 응답비율 및 순서에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낸 그림이다.

<표 3>과 <그림 2>로부터, 본인, 부모님, 고교교사, 기타 4개의 응답항목의 응답비율에 대한 순서는 5년간 모두 동일하게 본인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모님, 고교교사, 기타의 순서이다. 또한, 5년간 응답항목에 대한 구성비율이 동일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성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카이제곱 검정(서울대학교)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43.248	12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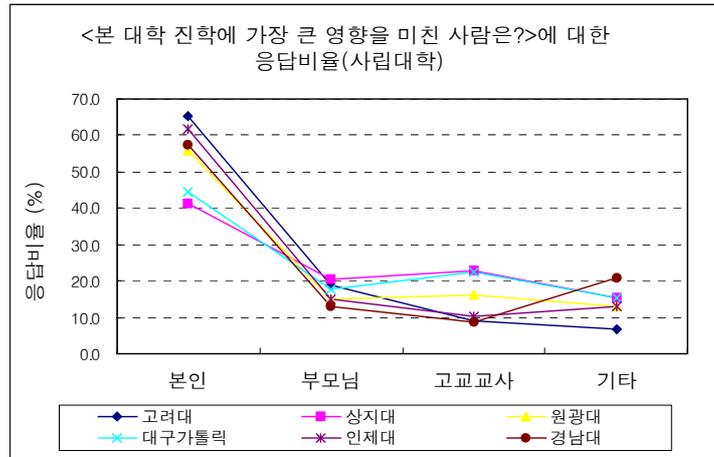
동일성검정의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지난 5년간 서울대학교의 응답문항별 구성비율은 동일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2.2 사립대학교

국립대학이 추출된 대학 수와 동일한 6개 사립대학을 표본으로 하였으며, 특히 인제대학교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3년 동안(2001년은 자료가 없음)의 조사 보고서 분석결과를 기초로 연도별 각 항목의 응답비율 순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들 6개 사립대학에 대한 현황을 <표 5>에 나타내었다.

<표 5> “본 대학에 진학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에 대한 응답비율(사립대학의 경우)

질문 문항 대학교	본인	부모님	고교교사	기타
고려대	65.1	18.9	9.2	6.8
상지대	41.2	20.4	22.9	15.5
원광대	55.8	15.0	16.2	13.0
대구가톨릭	44.3	17.7	22.5	15.5
인제대	61.7	14.9	10.3	13.1
경남대	57.4	13.0	8.6	21.0



<그림 3> 본 대학 진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에 대한 분포(사립대학)

<그림 3>은 <표 5>의 각 항목별 응답비율의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6개 사립대학 모두에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본인’이었고, 또한, 3개 대학에서 본인 다음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부모님’(단, 원광대학교는 고교교사와 부모님에 응답한 비율은 각각 16.2%, 15.0%이고 대구가톨릭대학교는 각각 22.5%, 17.7%이고 상지대학교는 각각 22.9%, 20.4%)이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본인’이라는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65.1%로 국립대학의 최고 비율인 서울대학교(71.5%)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은 상지대학교의 41.2%로 국립대학교의 최저비율(한국해양대학교 40.8%)보다는 약간 높은 구성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부모님’이라는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상지대학교로써 20.4%이고 가장 낮은 대학은 경남대학교의 13%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립대학 입시에서 고등학교 교사들이 입시생들의 대학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10%진후에서 20% 사이(최저 비율은 경남대학교의 8.6%, 최고 비율은 상지대학교의 22.9%)로 본인이나 부모님에 비해 그 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립대학간 응답항목의 구성비율에 대한 동일성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유의수준 0.01에서 “ H_0 : 6개 사립대학의 문항별 응답비율은 동일하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사립대학 간에도 소재지역과 대학의 규모 등의 차이에 따른 특색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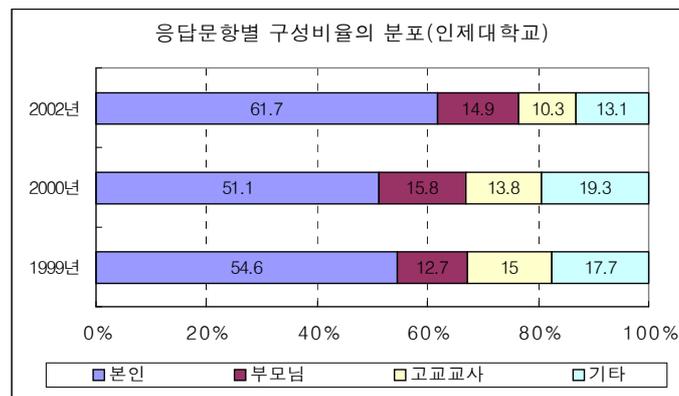
<표 6> 카이제곱 검정의 결과(사립대학)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780.228	15	.000

<표 7>은 6개 사립대학 중 인제대학교의 3년(1999년, 2000년, 2002년)간 신입생 실태조사에서 「본 대학에 진학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문항 별 응답비율 현황을 나타낸다.

<표 7> “본 대학에 진학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에 대한 응답비율(인제대학교, 1999년부터 2002년간)

질문 문항 대학교	본인	부모님	고교교사	기타
1999학년도	54.6	12.7	15.0	17.7
2000학년도	51.1	15.8	13.8	19.3
2002학년도	61.7	14.9	10.3	13.1



<그림 4> “본 대학에 진학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에 대한 연도별 응답비율(인제대학교, 5개년 간)

<표 7>과 <그림 4>로부터 본인, 부모님, 고교교사, 기타 4개 응답항목의 응답비율에 대해 3개년 모두 본인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고, 다른 항목에 대한 응답비율은 년도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역시 고교교사라는 문항에 응답한 비율은 10%대로

그다지 높다고 할 수는 없다. 3년간 응답항목에 대한 응답비율에 대한 동일성검정의 결과는 <표 8>에 나타내었으며 유의수준 0.01에서 지난 3개년 동안 문항별 응답비율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 카이제곱 검정(인제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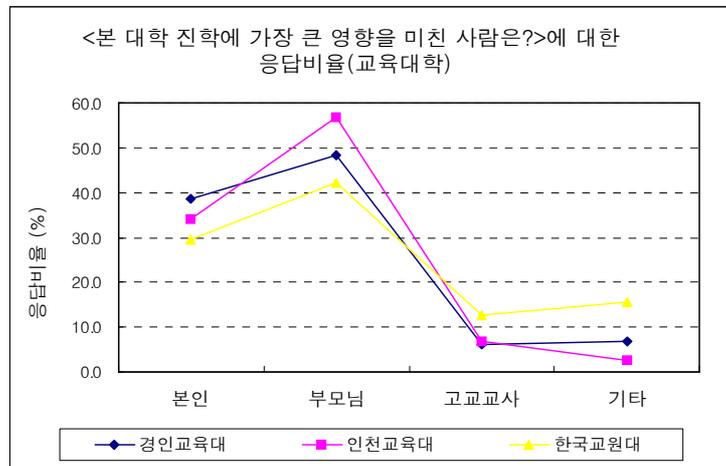
	값	자유도	접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50.113	6	.000

2.3 교육대학교

3개 교육대학(교원대학교를 포함, 이하 교육대학으로 지칭함)을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교원대학교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의 조사보고서를 자료로 활용하여 년도 별 각 항목의 응답비율의 순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들 3개 교육대학에 대한 현황을 <표 9>에 각 응답항목 별 비율의 추이를 <그림 5>에 나타낸 것이다.

<표 9> “본 대학에 진학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에 대한 응답비율(교육대학)

질문 문항 대학교	본인	부모님	고교교사	기타
경인교육대	38.7	48.3	6.3	6.7
인천교육대	34.0	56.7	6.8	2.5
한국교원대	29.4	42.3	12.7	15.6



<그림 5> 본 대학 진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에 대한 분포(교육대학)

3개 교육대학 모두에서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부모님’이고, 그 다음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본인’이었다. 인천교육대학교의 경우에는 ‘부모님’이라는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56.7%로 국립과 사립 및 교육대학교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육대학교에서 2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본인’이라는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교는 경인교육대학교(38.7%)이고 가장 낮은 대학교는 한국교원대

학교(29.4%)이다. 반면 ‘고교교사’라는 항목에 응답한 비율은 6.3%부터 12.7%사이로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보다는 상대적으로 응답비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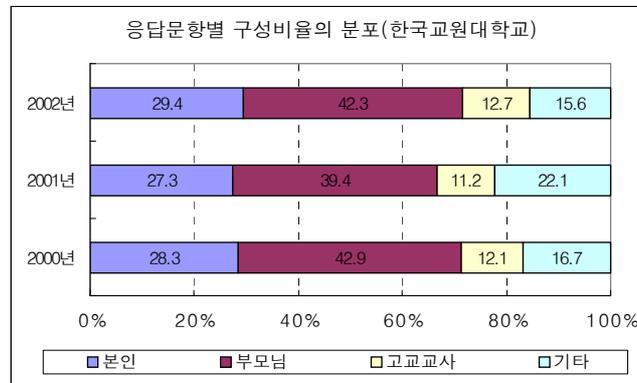
<표 10> 카이제곱 검정의 결과(교육대학)

	값	자유도	접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97.820	6	.000

다음으로 3개 교육대학교간 응답항목에 대한 구성비율에 대한 차이가 인정되는지를 알기 위한 동일성검정의 결과가 <표 10>으로 3개 교육대학교의 문항별 응답비율은 차이가 인정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표 9>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교원대학교의 경우에는 3번째와 마지막인 4번째 응답 비율이 다른 2개의 교육대학교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표 11> “본 대학에 진학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에 대한 응답비율(한국교원대학교, 2000년부터 2002년간)

질문 문항 대학교	본인	부모님	고교교사	기타
2000학년도	28.3	42.9	12.1	16.7
2001학년도	27.3	39.4	11.2	22.1
2002학년도	29.4	42.3	12.7	15.6



<그림 6> “본 대학에 진학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에 대한 연도별 응답비율(한국교원대학교, 5개년 간)

<표 11>과 <그림 6>은 한국교원대학교의 지난 3개년(2000년~2002년)간 신입생 실태조사에서 「본 대학에 진학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문항 별 응답 비율 현황과 분포를 나타낸다.

한국교원대학교의 지난 3년간 4개 응답항목의 비율이 본인, 부모님, 기타, 고교교사의 순서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과는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대학교의 경우에도 역시 고교교사에 대한 응답비율은 10%대로 그다지 높다고 할 수는 없다.

3개 교육대학간 응답항목에 대한 응답비율의 동일성검정 결과를 <표 12>에 나타내었다.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유의확률이 0.191로 유의수준 0.05에서 “ H_0 : 교육대학의 3년간 문항별 응답비율은 동일하다”라는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교육대학들 간의 구성비율은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과는 달리 ‘문항별 응답비율은 동일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교육대학교라는 특수 목적대학교로써 졸업하면 당장 교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특징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12> 카이제곱 검정의 결과(교육대학교)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8.709	6	.191

2.4 판별분석

각 대학의 신입생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표본 대학들이 어떤 군에 속하는가를 판별해주는 판별분석을 이용하여 국립, 사립, 교육대학교를 판별해 보았다. 이를 위해, 대상 변수는 질문의 각 응답항목(본인, 부모님, 고교교사, 기타)으로 하고 군은 편의상 국립대학교는 1, 사립대학교는 2, 교육대학교는 3으로 두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총 15개(국립대학교 : 6개, 사립대학교 : 6개, 교육대학교 : 3개)의 자료를 4개의 변수를 이용하여 3개의 군으로 판별해 주는 것이다. 이들 자료를 SPSS를 이용하여 판별분석한 결과는 <표 13> ~ <표 15>와 같다(서의훈(2002), 문승호(2005) 참조).

<표 13> 구조행렬

	함수	
	1	2
부모님	-0.969	0.129
본인	0.431	0.159
고교교사	0.278	0.228
기타	0.280	-0.591

<표 14> 함수의 집단 중심점

	함수	
	1	2
1(국립대)	1.345	-0.669
2(사립대)	2.767	0.659
3(교육대)	-3.065	0.144

각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응답항목과 판별함수의 통합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표 13>의 구조행렬을 살펴보면 판별함수 1은 부모님의 상관계수가 -0.9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본인의 0.431로 다른 항목의 값 보다 크므로 판별에 기여하는 정도는 부모님과 본인이 다른 항목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판별함수 2는 기타의 상관계수가 -0.591로 판별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표 14>의 함수 집단 중심점을 살펴보면 군 1(국립대)과 군 2(사립대)는 함수 1의 값이 각각 1.345와 2.767이지만 군 3(교육대)은 -3.065로 음수이다. 이것으로부터 정준 판별함수의 첫 번째 함수 값에서는 군 3인 교육대와 다른 군 1과 2는 잘 분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번째 함수 값에서는 군 1(-0.669)과 군 2(0.659)가 잘 분리되는 것을 알 수 있다(신재경, 문승호(1996), 石村貞夫(1997), 田中 豊 외(1987) 참조).

〈표 15〉 판별분석을 이용한 분류결과

	군(그룹)	예측 소속집단			계
		1(국립)	2(사립)	3(교육)	
원 소속 집단	1(국립)	4	2	0	6
	2(사립)	1	5	0	6
	3(교육)	0	0	3	3
	계	5	7	3	15

분석결과, 교육대학은 모두 올바르게 판별하였지만 국립대학 중 2곳과 사립대학 중 1곳은 잘못 판별하고 있음을 <표 15>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원래의 집단 케이스 중 80%(12/15)가 올바르게 분류되었다. 잘못 분류한 2개의 국립대학은 서울대학교와 전남대학교이며, 1개의 사립대학은 경남대학교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으로 선택한 대학의 수가 많지 않았지만 약 80%에 가까운 판별율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전국의 더 많은 대학교의 자료를 이용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보여 줄 수 도 있을 것이다.

3. 대학입시에서 일선 고등학교 교사들의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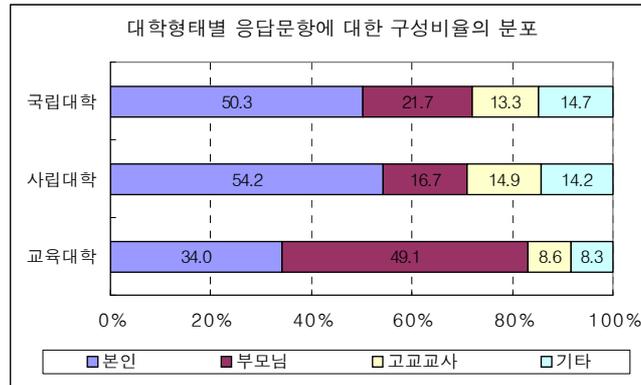
앞에서 국립, 사립, 교육대학별로 각 대학에서 실시한 신입생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진학대학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에 대한 응답비율의 행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일선 고등학교 교사들이 입시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국립대학교를 살펴보면 6개의 국립대학교의 해당 설문에 대해서 ‘고교교사’라고 응답한 비율은 최저 7.9%(창원대학교)에서 최고 17.9%(경상대학교)로 모든 대학교에서 20%를 밑돌고 있다. 반면에 ‘본인’이라는 항목에 응답한 비율은 최저 40.8%(한국해양대학교)에서 최고 71.5%(서울대학교)나 되어 두 항목을 비교하면 ‘본인’에 응답한 비율이 ‘고교교사’에 응답한 비율보다 무려 4~5배 정도 높은 수 값을 보여준다. 또한 앞 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부모님’에 응답한 비율은 최저 12.8%(서울대학교)에서 최고 33.9%(창원대학교)로 ‘고교교사’에 응답한 비율보다도 1.5~2배 가까운 수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국립대학교인 경우 일선 고등학교 교사들의 영향은 그다지 크다고는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사립대학교를 살펴보면 6개의 사립대학교의 해당 설문에 대해서 ‘고교교사’라고 응답한 비율은 최저 8.6%(경남대학교)에서 최고 22.9%(상지대학교)로 최고인 상지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본인’이라는 항목에 응답한 비율은 최저 41.2%(상지대학교)에서 최고 65.1%(고려대학교)나 되어 두 항목을 비교하면 ‘본인’에 응답한 비율이 ‘고교교사’에 응답한 비율보다 3~5배 정도 높다. 또한 ‘부모님’에 응답한 비율은 최저 13%(경남대학교)에서 최고 20.4%(상지대학교)로 ‘고교교사’에 응답한 비율이 조금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역시 사립대학교인 경우에도 일선 고등학교 교사들의 영향은 그다지 크다고는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교육대학교를 살펴보면 3개의 교육대학교의 해당 설문에 대해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부모님’으로 앞의 국립과 사립대학교의 경우인 ‘본인’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대학교중 부모님이라는 항목에 응답한 비율은 최대 56.7%(인천교육대)로 절반을 상회하는 값이고 최저 42.3%인 한국교원대의 경우에도 무려 40%를 웃도는 값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인’이라는 항목에 응답한 비율도 약 30%에서 40% 전후의 값으로 2 번째의 높은 비율이다. 반면에, ‘고교교사’라는 항목에 응답한 비율은 한국교원대학교의 12.7%를 제외하고는 6%대의 비율로 국립과 사립에 비해서도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육대학교인 경우에도 ‘고교교사’라는 항목에 응답한 비율은 낮았고 이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일선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입시생들의 대학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표본으로 이용한 국립, 사립, 교육대학별 각 응답항목에 대한 구성비율의 대학형태별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대학은 분포의 차이가 상당히 크며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에도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의 형태뿐만 아니라 소재지역이나 각 대학의 특성 등을 이용한 입시전략의 수립은 보다 우수한 신입생의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 대학 진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의 분포(대학형태별)

4. 결론 및 향후과제

지금까지 사립 및 교육대학별 신입생실태조사 중 신입생이 입학한 대학의 선택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을 중심으로 응답문항별 비율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과 사립대학교의 경우에는 본인이라는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반면에 교육대학교의 경우에는 부모님이라는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일선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의 영향력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각 대학에서 신입생 유치를 위한 입시홍보 전략을 계획할 때, 입시생 및 고교교사에게 집중된 현 입시홍보 전략을 지금부터라도 입시생들의 부모님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입시전략이 우수한 학생 유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대학의 경우, 입시 담당자들은 학부모에게 더 적극적인 입시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본 대학에 진학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이라는 질문에서 한 문항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만일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또는 설문지에서 다른 문항과의 관계 등을 조사 분석해 보면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경남대학교 취업협력처 취업지원센터(2005). 2005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2. 경상대학교 학생생활·취업지원센터(2002). 2001학년도 신입생 현황자료집.
3. 경인교육대학교 생활상담센터(2004). 2004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보고서.
4. 고려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2005). 2005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5. 김명수, 유형근(2002). 한국교원대학교 2002학년도 신입생실태조사, 한국교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6호, 3-56.
6. 대구카톨릭대학교 학생상담센터(2004). 2003학년도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
7. 문승호(2005). 데이터 유형에 따른 통계분석기법, 자유아카데미.
8. 상지대학교 학생상담연구센터(2003). 2003 신입생 의식 실태조사 연구.
9. 서울대학교 대학생활 문화원(2002, 2003, 2004). 2002, 2003 및 2004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
10.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2000, 2001). 2000 및 2001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
11. 서의훈(2002). SPSS 통계분석, 자유아카데미.
12. 신재경, 문승호(1996). 다변량 통계해석 입문, 자유아카데미.
13. 이중석, 박원주(2000). 한국교원대학교 2000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한국교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4호, 3-64.
14. 이중석, 유형근(2001). 한국교원대학교 2001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한국교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5호, 3-57.
15. 인제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2000, 2001, 2003). 1999, 2000 및 2002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연구.
16. 인천교육대학교 생활상담센터(2002). 2002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보고서.
17. 원광대학교 학생상담센터(2003). 신입생의 특성연구.
18. 전남대학교 카운슬링센터(2004). 2004학년도 전남대학교 신입생 실태조사.
19. 창원대학교 취업장학과 취업상담실(2005) 신입생 실태조사 보고서.
20. 충북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2005). 2004 신입생 실태조사.
21. 한국해양대학교 학생지원과(2003). 2003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22. 石村貞夫(1997). SPSSによる 統計處理の手續, 東京図書株式會社.
23. 田中 豊, 垂水共之, 脇本和昌(1987). パソコン統計解析ハンドブックⅡ 多変量解析編, 共立出版株式會社.

[2006년 7월 접수, 2006년 8월 채택]